

<언어와 매체>

35. 정답: ④

'놀이방'의 직접 구성 요소는 '놀이'와 '방'이고, 이 중 '놀이'의 형태소는 '놀-/-이'로 분석된다. 이때 어근 '놀-'과 접미사 '-이'는 둘 다 의존 형태소에 해당된다. 그리고 '단맛'의 직접 구성 요소는 '단'과 '맛'이고, 이 중 '단'의 형태소는 '달-/-ㄴ'으로 분석된다. 이때 어간 '달-'과 어미 '-ㄴ'은 둘 다 의존 형태소에 해당된다.

36. 정답: ③

㉔의 '직선'은 그것의 형성에 사용된 말들인 '직접'과 '선거'의 첫음절인 '직'과 '선'끼리 결합한 경우에 해당한다. 그리고 '직선'은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 중 '선거'의 하의어이므로 서로 상하 관계를 맺는다.

37. 정답: ⑤

- 버들잎→[버들닙]: ㄴ 첨가에 의한 '첨가' 한 번, 음절의 끝소리 규칙(ㅍ→ㅂ)에 의한 '교체' 한 번
- [버들닙]→[버들립]: 자음 동화 중 유음화(ㄴ→ㄹ)에 의한 '교체' 한 번
- 덧입어→[덧닙어]: 음절의 끝소리 규칙(ㅅ→ㄷ)에 의한 '교체' 한 번, ㄴ 첨가에 의한 '첨가' 한 번
- [덧닙어]→[덧니버]: 자음 동화 중 비음화(ㄷ→ㄴ)에 의한 '교체' 한 번

38. 정답: ②

㉔의 '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.'에서 '동생'을 '할머니'로 바꾸면 이 문장은 '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혔다.'로 바뀐다. 따라서 '동생에게'를 '할머니께'로 바꾸는 것은 맞다. 그러나 주체인 '나'가 자신을 높일 수는 없으므로 '읽혔다'에 '-시-'를 넣어야 한다('읽히셨다')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39. 정답: ①

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. ㉔에서 부속 성분은 부사어 '바르래'인데, 이는 체언(명사) '바를'과 부사격 조사 '-애'가 결합한 것이다. ㉕에서 부속 성분은 먼저 관형어 '나라'가 있는데, 이는 체언(명사) '나라'와 관형격 조사 'ㄴ'이 결합한 것이다. 그리고 부사어 '中國에'는 체언(명사) '中國'과 부사격 조사 '에'가 결합한 것이다. ㉖에서 부속 성분은 관형어 '生人'인데, 이는 체언(명사) '生人'과 관형격 조사 '이'가 결합한 것이다.

※ 生人(생인): 「명사」 살아 있는 사람.=생자(生者).

40. 정답: ⑤

학생회장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화면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.

41. 정답: ②

다에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인 "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용 원칙을 마련했습니다."를 듣고 "설문 조사에 근거해 원칙을 마련하려고 한 것을 보니까,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."라며 학생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.

42. 정답: ⑤

덧글 기능을 활성화한 것은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, 친구들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
43. 정답: ①

부사 '직접'을 사용한 것은 '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'이 아니라, '자신의 공약에 관해' 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.

44. 정답: ③

(가)에서는 '더 보기 기능', '관심 도서 기능' 등의 여러 기능이 제공된다.

45. 정답: ④

㉠의 기능은 '관심 도서 기능'인데, 학생은 이미 있던 이 기능이 앱에 원래부터 있는지조차 몰랐다. 그러므로 ㉠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